

박인로(朴仁老)의 전란 체험과 〈선상탄(船上歎)〉의 의미 지향*

이 승 준**

차 례

1. 서론
2. 박인로(朴仁老)의 전란 체험과 〈선상탄(船上歎)〉의 창작 맥락
3. 〈선상탄(船上歎)〉의 구성적 특징과 의미 지향
4. 결론

| 국문초록 |

주지하듯 임진왜란은 17세기 시가사의 변별적 자질들에 대한 출현 동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임진왜란기에 창작된 일련의 시가 작품은 16~17세기 시가사의 지속과 변모의 저변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부여되었다. 본고의 관심사인 박인로의 〈선상탄〉 또한 임진왜란 체험에 따른 현실 인식과 정회를 가감 없이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목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선상탄〉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이 충분히 수행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대체로 전란가사의 범주 속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박인로의 여타 국문시가와 관련하여 그 창작 맥락 및 의미 지향 등이 논의되었다. 선행 연구의 논의는 정합성의 문제를 진단하기에 앞서 연구 방법론상 〈선상탄〉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상탄〉의 문면을 장악하는 비탄의 정서에 근간하여 작품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박인로의 비극적인 전란 체험과 1605년경 부산을 감싼 전란의 긴장감에 근간하여 〈선상탄〉의 구성적 특징과 의미 지향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 결과 비탄의 정서가 작품의 전반을 관류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선상탄〉의 주제와 관련하여 전란의 종식과 평화에 대한 기원 또한 현실이 이상 사회의 그것과 괴리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선상탄〉의 비탄이 박인로 개인의 정회를 넘어 당시 경상좌수영 수군 일반의 목소리를 포괄하고 있음을 밝혔다.

끝으로, 〈선상탄〉의 의미 지향과 비탄의 정서는 16세기 시가사에서 찾기 어려운 특징이자 17세기 시가사의 변별적 자질들과 관련할 가능성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전란가사로서 〈선상탄〉은 시가사의 구도와 관련하여 임진왜란의 위상을 방증하는 구체적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음을 진단하였다.

핵심어 : 박인로(朴仁老), 〈선상탄(船上歎)〉, 비탄(悲歎), 임진왜란(壬辰倭亂), 부산,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

* 이 논문은 국립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23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서론

주지하듯 임진왜란(壬辰倭亂)은 16세기 시가사(詩歌史)의 전망과 대비하여 17세기 시가사의 변별적 자질들이 출현한 동인(動因)으로 주목받았다. 전란이 야기(惹起)한 사회 전반의 충격은 광해군(光海君, 1575~1641) 재임기 당쟁(黨爭)의 역학 관계와 맞물려 17세기 시가사의 다채로운 면모를 형성할 수 있는 전제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진왜란기에 창작된 일련의 시가 작품은 16~17세기 시가사의 지속과 변모의 저변을 탐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 의의가 있다. 본고의 관심사인 박인로(朴仁老, 1561~1642)의 <선상탄(船上歎)> 또한 임진왜란 체험에 따른 현실 인식과 정회를 가감 없이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실 17세기 시가사에서 박인로가 차지하는 위상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그의 국문시가가 강호(江湖), 교훈(教訓), 은둔(隱遁), 가난(貧), 산수(山水) 등과 같은 시가사의 주요 모티프(Motif)를 포괄하는 점은 연구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박인로의 국문시가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인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것조차 별도의 과제가 필요할 만큼 다양한 논의가 축적되었다.¹⁾

그런데 박인로의 국문시가 중 전란가사(戰亂歌辭)에 해당하는 <태평사(太平詞)>와 <선상탄>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²⁾ 이들 작품은 전란 당시의 군무(軍務) 체험을 집약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그 위상이 조명되었음에도, 정작 본격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태평사>³⁾와 <선상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전란가사라는 역사적 갈래의 거

1) 주지하듯 17세기 시가(詩歌) 작가로서 정철(鄭澈, 1536~1593), 윤선도(尹善道, 1587~1671)와 더불어 박인로(朴仁老, 1561~1642)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수준이 축적되어 있다. 김창규에 의하면 2011년까지 박인로의 관련한 직·간접적인 연구 성과는 총 274편에 달한다고 한다(김창규, 『노계 시문학 연구 목록』, 『노계시의 재조명』, 박이정, 2012, 607~627쪽). 이후 단순 확인 가능한 성과만 가늠하여도 오늘날 박인로와 관련한 직·간접적 연구는 348편에 이른다. 이는 저서를 제외한 수치이다.

2) 박인로의 가사 문학에 대한 관심 중 전란가사에 대한 논의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그조차 <태평사>에 대한 관심이 치우쳐 있음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지적된 것이다. 이정주,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가사(歌辭) 연구(研究)-전쟁가사인 <태평사>와 <선상탄>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6,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55~59쪽.

시적 전망이나 박인로의 여타 국문시가와 관련하여 그 창작 맥락과 주제 의식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조명되었을 뿐이며, 그마저도 <태평사>에 치우쳐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본고의 대상인 <선상탄>은 연구 방법론상 미시적 탐색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⁴⁾ 이는 작품의 이해에 대한 쟁점적인 전망을 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선상탄>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논의가 작품의 역사적 맥락을 각각 관념성 또는 사실성에 기반하여 검토한 정황은 이를 잘 보여준다.⁵⁾

기실 선행 연구의 성과는 개별 논의의 정합성을 진단하기에 앞서 그 자체만으로도 <선상탄>의 다층적인 면모를 시사한다.⁶⁾ 다만 <선상탄>이 비교적 이른

3) <태평사>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의 문제, 특히 창작 및 향유 환경과 관련한 역사적 이해에 재론의 여지가 있음은 선행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다. 이승준, 「壬辰倭亂 前後 국문시가의 太古 모티프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1~98쪽.

4) 이상의 문제의식은 <선상탄>에 대한 초기의 단독 연구를 수행한 최웅에 의해서도 지적된 사례이다(최웅, 「〈船上嘆〉 연구」,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679~689쪽). 그러나 <선상탄>에 대한 이후의 연구 경향은 그다지 변하지 않은 듯하다. 오늘날 박인로의 전란가사에 대한 단독 연구 성과는 <태평사> 3편, <선상탄> 2편에 불과하다. 본고의 관심 대상인 <선상탄>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정주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그의 논의 또한 <태평사>와의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도출한 견해의 연장선에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경향은 각주 6)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5) '전란이란 역사적 현실을 관념으로 재구하는 한편, 이상과 희망에 찬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한창훈, 「박인로 가사에 나타난 표현의 사실성과 문제 해결의 관념성<선상탄>과 <누항사>를 대상으로」, 『오늘의 가사문학』 10, 고요아침, 2016, 113~116쪽), 또는 '전쟁과 평화라는 대립적 심상 공간의 표상을 제시하며 작품의 의미 지향이 전쟁의 종식과 평화적 질서 회복으로 귀착되어 있다는 시각(이형태, 「노계 가사의 유교문화적 심상공간과 그 의미 지향」, 『國際言語文學』, 국제언어문화회, 2020, 11~17쪽.) 등은 <선상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관념성을 강조한 논의들이다.

반면, 논자들이 따라선 <선상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사실성에 주목한 사례도 있다. '전란 후의 피폐한 빈방의 상황을 그려낸 전란가사로서의 사실성을 획득하는 작품(김용찬, 「가사 명품 산책」 전란의 뒤끝에서 평화를 기원하다, <선상탄>」, 『오늘의 가사문학』 19, 2018, 28~38쪽), 또는 '군사력의 실체에 기반한 대외 인식을 토대로 부정적인 정서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한편, 문물이 복원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유교적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한 작품(김동규,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과 시가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34~47쪽.) 등의 견해가 그것이다.

6) <선상탄>의 전란 체험과 서술 방향의 다층성은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주는 '<선상탄>에서 원용된 용사가 사적이든 관념이든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평이한 사례라는 점에서 반일과 극일 및 평화 추구의 내용 전달의 표현'으로 평가하였다(이정주,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가사(歌辭) 연구(研究)-전쟁가사인 <태평사>와 <선상탄>을 중심으로」, 77쪽). 이정주는 <선상탄>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이상의 견해를 다시금 강조한 듯하다. 그는

시기부터 주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점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선행 연구는 작품의 주제적 층위에서는 일정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바, <선상탄>의 의미 지향이 ‘전란의 종식과 평화의 추구’에 있다는 이해가 그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제는 <선상탄>에 대한 초기의 연구부터 제언되었다는 점⁷⁾에서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구도로 기능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선상탄>의 화자의 태도를 ‘이상과 희망에 찬 자세’ 또는 ‘평화적 일상 회복의 염원’ 등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연구자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작품의 이해가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선행 연구의 논의는 그 연구사적 의의와는 별개로 자칫 <선상탄>의 현실 인식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후술할 것이지만 <선상탄>은 명군(明君)이 철수한 상황에서 일본의 재침(再侵) 위기가 고조되었던 1605년에 지어진 작품이었다. 특히 작품이 창작된 부산은 전란의 중심지로서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부터, 강화교섭이 결렬되고 정유재란(丁酉再亂)의 재침이 일어난 1597년에 이르기까지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을 중심으로 조선 수군이 괴멸 수준의 피해를 입은 사지(死地)였다. 따라서 <선상탄>이 창작될 시기의 부산은 임진왜란의 여파와 관련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평화적 전망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다. 이에 작품에 대한 해석 또한 종전(終戰)의 문제로 포괄하기에 앞서 선행 검토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선행 연구의 논의는 작품의 제명(題名)과 관련한 문제를 주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선상탄>은 ‘배 위에서의 탄식’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⁸⁾ 필자 또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이 작품

<선상탄>의 수사법과 관련하여 관념적 어구나 가치는 전적으로 선가자(善歌者)인 123박인로의 자위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작품의 의미 지향이 전쟁을 일으킨 왜에 대한 원망에서 평화에 대한 추구에 있음을 지적하였다(이정주, 「작품의 사회적 의미지향과 수사적 표현 연구-「선상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9,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559~571쪽).

7) 최웅은 <선상탄>의 주제를 ‘반일(反日)감정과 극일(克日)의 포부 및 국가간의 공존 추구라는 노계의 애국심과 평화주의 정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일 또는 극일 등의 용어가 지니는 쟁점적인 의미는 차치(且置)하더라도, <선상탄>에 대한 이해가 ‘평화’로 수렴되는 것은 초기의 연구 성과에서부터 확인된다. 최웅, 앞의 논문, 681쪽.

8) ‘탄’의 의미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는 ‘노래하다, 읊다, 탄식하다, 칭찬하다’ 등으로 해석될 수 있

은 박인로의 국문시가 중 유일하게 제명에서부터 정서적 특질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이는 <선상탄>의 정서적 특질이 작품의 의미 지향과 관련한다는 박인로 나름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사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탄(歎)’이 시름으로부터 유발된 슬픔과 관련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상탄>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시름과 슬픔의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선상탄>에 대한 논의의 생산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선행 연구의 쟁점적인 전망을 잠시 유보하고, 작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선상탄>의 창작 맥락과 관련한 박인로의 전란 체험에 보다 밀착하는 한편, ‘탄’의 정서에 근간하여 작품의 의미 지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17세기 전란가사로서 <선상탄>의 면모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2. 박인로의 전란 체험과 <선상탄>의 창작 맥락

전란가사로서 <선상탄>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기실 박인로의 전란 체험을 적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료(史料)는 소략한 편이다. 『노계집(蘆溪集)』의 <행장(行狀)>을 통해 임진왜란 당시 성윤문(成允文, ?~?)의 근막에서 활동했던 정황과 1599년을 전후로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守門將), 선전관(宣傳官), 조라포만호(助羅浦萬戶) 등을 역임하였던 것 정도가 확인된다.

다는 점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다만 <선상탄>의 연행과 관련한 음악적 맥락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품의 내용에 견주어 보았을 때, <선상탄>의 ‘탄’은 일차적으로 ‘탄식하다’의 의미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이정주, 「작품의 사회적 의미지향과 수사적 표현 연구-선상탄을 중심으로-」, 567쪽). 아울러 최근 전란가사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선상탄>을 검토한 자리에서도 ‘탄’이 불안정한 시국에서 느끼는 근심과 관련하며, 전기 사대부 가사와는 노래의 성격이 다른 지점임을 지적한 견해 또한 기본적으로는 선행 연구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김동규, 앞의 논문, 35쪽).

- 9) 박인로의 국문시가 작품은 다음과 같다. <태평사(太平詞)>, <선상탄(船上歎)>, <사제곡(莎堤曲)>, <누항사(陋巷詞)>, <독락당(獨樂堂)>, <소유정가(小有亭歌)>, <영남가(嶺南歌)>, <상사곡(相思曲)>, <권주가(勸酒歌)>, <노계가(蘆溪歌)>, <임암별곡(立巖別曲)>, <조홍시가(早紅柿歌)>, <오륜가(五倫歌)>, 임암이십구곡(立巖二十九曲) 등이다. 이중 제명에서 정서적 지향을 노출한 작품은 <선상탄>이 유일하다.

오늘날 박인로의 전란 체험은 <행장>보다 그의 전란가사에 근거하여 이해되는 실정이다. <태평사>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을 만하다. 특히 <태평사>의 부기(附記)¹⁰⁾는 박인로가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 성윤문의 군막에서 활동하였던 저간의 정황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주목받았다. 그 결과 <태평사>는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태평연(太平宴) 등과 같은 의례 의식에서 향유되었을 가능성이 추론되었고,¹¹⁾ 공적(公的) 기능을 수행하였던 당시 상황과 맞물려 이른바 ‘승전의 노래’라는 이해가 공유되었다. <태평사> 창작과 관련한 역사적 정황으로 도산성(島山城) 전투를 주목하였던 후속 논의 또한 ‘승리의 자부심을 고취’하거나 ‘동남해안의 평화가 도래한 기쁨을 노래’한 것 등으로 해석한 시각이 이를 방증한다.¹²⁾

문제는 승전의 노래로서 <태평사>에 대한 이해는 자칫 박인로의 전란 체험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태평사>의 주제 의식과 관련하여 밀도 있게 다루어지는 승전의 환희와는 달리, 실상 작품의 배경인 도산성 전투가 임진왜란의 대표적인 패전(敗戰)으로 평가되었다는 점¹³⁾을 고려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도산성 전투는 임진왜란의 말미에 시행된 조명연합군(朝明聯合)의 대규모 공세 작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연합군은 도산성 공략에 실패하고 말았

10) 『蘆溪集』, <太平詞> “무술년 계동(季冬)에 부산에 주둔한 왜적이 밤을 틈타 달아났다. 당시 공은 좌병사 성윤문의 군막에서 듣고 있었다. 병사는 이를 듣고 곧 군사를 거느려 부산에 이르렀다. 십여 일을 머문 후에 본영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공에게 이 가사를 짓게 하였다. 戊戌季冬, 釜山屯賊, 乘夜奔潰. 時公佐左兵使成允文幕, 兵使聞卽率軍馳到釜山, 留十餘日後還到本營, 明日, 使之作此歌.”

11) 이는 <태평사>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김용철에 의해서 제기되었다(김용철, 「태평사의 내용 구성과 미적 형식」, 『한국문학논총』 29, 한국문화회, 2001, 7~26쪽). 김용철의 견해는 박인로의 생애와 시가 문학 전반에 대해 검토하였던 최현재에 의해 수용되면서 보편적인 구도로 자리한 듯하다(최현재, 「朴仁老 詩歌의 現實的 基盤과 文學的 指向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56쪽).

12) 황병익, 「임란기(壬亂期) 부산지역 전란가사(戰亂歌辭)의 의미 고찰」, 『항도부산』 26,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0, 3~10쪽; 김동규, 앞의 석사학위논문, 2021, 27~28쪽.

13) 1597년 12월 27일부터 13일 동안이나 집중적인 포위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였고, 이후 1598년 9월 22일부터 2차 공성전이 펼쳐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다. 도산성 전투를 둘러싼 조명연합군의 전황은 다음 논문을 참고. 최두환, 「壬辰倭亂 時期 朝明聯合軍 研究」,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79~94쪽. 도산성 전투와 관련하여 <태평사>의 주제 의식에 대한 재론은 다음 논문 참고. 이승준, 「壬辰倭亂 前後 國문시가의 太古 모티프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1~96쪽.

다. 그 결과 당시 제독이었던 마귀(麻貴, ?~?)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어 명군 전반의 군사 지휘권이 분할 당하는 한편, 감찰 업무를 보았던 양호(楊鎬, ?~?)마저 탄핵이 되고 말았다. 특히 성윤문 또한 전란의 긴장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상좌병사의 유임에 실패하고 제주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의 최전방에서 명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던 종2품의 국방 주요 인사를 종전 이후 좌천시킨 것인데, 이는 도산성 전투를 계기로 성윤문의 정치적 위상이 대단히 불안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이탁영(李擢英, 1541~1610)의 전란 일기인 『정만록(征蠻錄)』¹⁴⁾에는 도산성 전투를 경험하였던 당대인의 절망적인 심사가 수록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楊經理와 麻提督은 불의에 포위를 풀고 회군하였다. 이르기를 적진을 오래 포위 하여도 항복하지 않고 병졸이 露宿을 여러 날 하여 사망자가 많아 안동으로 가서 휴식하고, 劉挺이 이끄는 수십만 군이 오기를 기다려 함세하여 다시 친다고 하였다. 온 나라가 힘을 다하여 군량을 모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가버리니 痛憤할 일이 아니겠는가?¹⁵⁾

提督은 安東을 출발하여 경성으로 향하였다. ○ 皇朝 大兵이 일시에 남하하여 劉提督은 順天으로 가고 董提督은 泗川으로 가고, 麻提督은 蔚山으로 갔으나 모두 승리하지 못하였다. 淸正은 불과 번번치 못한 일개 오랑캐고 孤城에 들어 있는데도 천하가 곤욕을 당하니 이는 시세인가? 운수인가? 痛歎할 일이다.¹⁶⁾

인용문은 임진왜란 시기 경상 감영의 영리(營吏)로 활동하였던 이탁영이 도산성 전투에서 느꼈던 비통한 심정을 보여준다. 특히 천하가 오랑캐에 휘둘리는 상황이라는 저자의 한탄이 시세와 운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음

14) 경상 감영의 영리(營吏)로서 이탁영의 활동과 군사일기 『정만록』의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박인호, 「임진왜란기 지방 이서의 전쟁 경험과 정리 작업 -이탁영의 『정만록』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34, 한국사학사학회, 2016, 35~65쪽.

15) 李擢英, 『征蠻錄』, 戊戌 春正月 初三日 “楊經理麻提督, 不意解圍旅師, 日久圍賊陣, 終不出降, 天兵露處多日, 死亡相仍, 退駐安東休兵養士, 又待劉挺兵數十萬出來, 合勢更討云. 竭一國輪糧空棄走, 可勝痛哉.”

16) 이탁영, 『정만록』, 戊戌 八月初一日 “提督自安東起身向京. ○皇朝大兵, 一時南下, 劉提督赴順天, 董提督赴泗川, 麻提督赴蔚山, 皆未得捷. 淸正不過么麼一倭, 而入據查查一孤城, 坐困天下, 時也運也? 可勝痛哉.”

을 주목해 보자. 이는 오랜 시기에 걸쳐 지속된 임진왜란의 충격이 도산성 전투를 통해 절정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만영의 문제의식은 경상좌병사 성윤문의 군막에서 도산성 전투에 직접 참전하였던 박인로에게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박인로 역시 일본은 명과의 연합 전선을 통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이자, 중화(中華)를 위협하는 이적(夷狄)의 위세로 인식되었을 듯하다. <선상탄>에서 “海中 모든 섬에 難當賊을 기쳐 두고 / 痛憤한 羞辱이 華夏에 다 밋나다”라고 읊조린 비통한 어조의 이면에는 그가 경험하였던 비극적인 전란 체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실 박인로가 1605년 경상좌수영에서 <선상탄>을 창작하며 임진왜란, 보다 엄밀히 말해 도산성 전투를 반추(反芻)하였을 가능성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상좌수영은 부산에 근거하였지만 관방(關防) 지역으로 울산을 포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좌병영과 함께 도산성 전투에도 참전하였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경상좌수영의 수군으로 부산을 찾는 과정에서 당시 그가 경험한 비극적인 전란 체험을 반추하였을 점은 비교적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박인로의 비극적인 전란 체험과 <선상탄>의 창작 맥락 간의 관련성을 보다 세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상탄>의 부기를 주목하고자 한다. 오늘날 <선상탄>의 부기는 <태평사>처럼 작품의 창작 맥락과 의미 지향을 검토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부기에 대한 선행 연구의 이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당시 나라가 아직도 남방이 근심스러워 공을 통주사(統舟師)로 뽑아 부산을 방어
토록 했는데, 공이 배에 와서 이 곡을 지었다.¹⁸⁾

상기한 부기를 통해 <선상탄>은 임진왜란의 여파 속에서 통주사(統舟師)로 부산을 방비하는 외중에 창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견 <선상탄> 창작

17)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위상과 활동」, 『군사』 1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281~319쪽.

18) 부기의 해석은 연구자마다 대동소이한바, 『신역(新譯) 노계집(蘆溪集)』이 대표적인 듯하다.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신역(新譯) 노계집(蘆溪集)』, 대보사, 2017, 32쪽. 원문은 필자가 『노계선생문집(蘆溪先生文集)』 초간본(初刊本)에 해당하는 규장각본을 참고하여 대조한 결과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편찬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계집』 <船上歎> “時, 國家尙憂南陲, 選公統舟師, 赴防釜山, 公臨船作此曲.”

과 관련한 저간의 정황을 적실(適實)이 시사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먼저 통주사는 관직명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통주사를 관직명으로 보고 장군으로 부임하였을 가능성을 가늠하는 듯하다. 그러나 주지하듯 부산은 경상좌수영이 설치된 곳이었다. 이에 부산의 장군은 수사(水使)인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로 정3품의 고위직 무관이고, <선상탄>이 창작된 1605년 당시에는 이응표(李應彪, 1555~?)가 재임 중이었다.¹⁹⁾

통주사와 관련한 인접 시기의 기록은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에서 확인되는바,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이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로 수군을 거느렸던 정황 정도이다.²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도 통주사는 관직명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수군절제사나, 수군절도사 등의 이칭(異稱)이라면 당시 관료로서 박인로의 위상이 상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박인로의 관료 생활은 1612년을 전후하여 조라포만호(助羅浦萬戶)를 끝으로 마무리가 된다.²¹⁾ 만호는 수군 행정 조직의 최일선 장교라는 점²²⁾을 보면, 1605년에 박인로가 경상좌수영의 최고위직 관료로 부임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인로의 경상좌수영 관료 생활에 대한 실마리는 부기의 문면을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주사’를 명사(名詞)가 아니라 ‘통(統)’을 서술어로 본다면 박인로는 ‘수군을 거느리고’ 부산에 부임한 것이 된다. 이때 부임 즉 부방(赴防)에 대한 해석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부방은 변방의 군역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부기는 박인로가 ‘수군을 거느리고 부산에 부방, 즉 군역을 간 것’ 정도로 해석된다.²³⁾

19) 부산시사편찬위원회, <慶尙左水營先生案>, 『港都釜山』 1, 대원인쇄문화사, 1962, 46쪽; 이영하, 「내영지(萊營誌) 원문」, 『국역 내영지』,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1, 67쪽.

20) 『李忠武公全書』, <鳴梁大捷碑>, “만력 이십오년 정유 구월 통제사 이공이 수군을 거느리고 진도의 벽파정 아래에 주둔하고 일본의 적군을 명량의 입구에서 대파하였다. 萬曆二十五年丁酉九月, 統制使李公, 統舟師, 進駐於珍島之碧波亭下, 大破日本賊於鳴梁之口.”

21) 『光海君日記』, 광해 4년 11월 13일 癸卯. 조라포 만호로서 박인로의 관료 생활은 다음 논문 참조. 이종문, 「蘆溪 朴仁老 文學의 創作 空間과 遺蹟 關聯 몇 가지 探索」, 『大東漢文學』 29, 대동한문학회, 2008, 184~196쪽.

22) 경상좌수영의 수군 편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한시진, 「문서행정을 통해 본 조선후기 慶尙左水營의 수군행정 운영」,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5~13쪽.

23) 이와 관련하여 최현재는 통주사를 관직으로 파악하는 경우는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

사실 부기는 박인로의 부산 부방과 관련한 관용적인 표현 정도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다만 필자가 보기엔 임진왜란 이후 수군 징병의 정황과 일정 정도 관련한다고 여겨진다. 임진왜란 직후 조선의 수군은 다수가 사망 또는 유망(流亡)하게 되며 심각한 결원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은 국방 정비를 위한 수군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소모진(召募陣)과 둔전(屯田) 등을 설치하여 유민(流民)을 모아 재편성을 추진하였다.²⁴⁾

이와 관련하여 <행장>에는 박인로가 1599년 선전관에 제수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주지하듯 선전관은 왕명의 출납과 군무를 담당하는 이들로, 그들의 역할 중에는 군사 호송 및 징병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²⁵⁾ 따라서 박인로가 주사를 거느리는 일로 선발되어 부산에 부방하였던 정황은 임진왜란 직후 선전관으로서의 수군 징병 활동과 경상좌수영의 수군 재편 과정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²⁶⁾

러 박인로의 구체적인 관직은 알 수 없지만 ‘여느 수군을 통솔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현재 또한 통주사를 벼슬로 보지 않았을 뿐, 당시 박인로의 행적을 두고 ‘주사를 통괄하는 자리로 보는 것에는 선행 연구와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최현재, 앞의 논문, 11쪽.) 최현재가 해석한 부기는 다음과 같다. “이때 나라의 남쪽 변방이 아직 근심스러워 공으로 하여금 수군을 지휘하게 하여 부산진에 부임하여 방어하도록 하였다. 공이 배에 임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 최현재, 『조선전기 사대부가사』, 문학동네, 2012, 210쪽.

- 24) 한성일, 『조선 전기 수군의 지역별 동원 실태와 운영-내륙지역(山郡) 양인의 수군 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193~196쪽.
- 25) 조선시대 선전관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논문 참조. 안병일, 『조선시대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운영과 기능, 그리고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8, 한국행정학회, 2014, 25~47쪽.
- 26) 다만 박인로의 한미한 정치 활동과 18세기에 구비 전승되었던 행적이 <행장>으로 기록되었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선조 연간에 최대 48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선전관을 역임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노계집』, <행장> “하루는 공의 손자 성규가 유문 약간을 모아서 나에게 부탁하며 말하길 ‘나의 선조의 언행은 구비(口碑)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一日, 公之孫聖規遺文若而條 託余曰, 吾先祖言行, 碑於口久矣.’ 게다가 1605년에 창작된 <선상탄>에는 “이 몸이 無狀한들 臣者ㅣ되야 이서다가 / 窮達이 길이 달라 문 뉘옵고 늘거신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따라서 박인로는 <선상탄>이 창작되던 시기를 전후하여 이미 관료 생활을 역임 중이되, 임금을 친위(親衛)하는 선전관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그보다는 1598년 박인로가 경상좌병영 군막에서 조력하였던 성윤문이 1604~1605년경 충청수사(忠淸水使)를 역임하였던 정황으로 보아 원수(元帥)의 종사관 정도에 해당하는 군무와 관련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듯하다. 다만 결정적인 오류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행장>의 기록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수군 징병과 관련한 직무는 선전관 또는 종사관이 그다지 변별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宣祖實錄』 선조 37년 7월 9일 무오, <조습이 형벌을 자행한 충청 수사 성윤문의 일을 회계하다>; 선조 38년 2월 24일 무진, <조중립·이시발·신광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와 더불어 작품의 구체적인 창작 정황은 <선상탄>의 서사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다.

늙고 病든 몸을 舟師로 보내실식
 乙巳三夏에 鎭東營을 ㄴ려오니
 關防重地에 病이 깊다 안자실라
 一長劍 비기치고 병선에 구테올나
 勵氣臆目 ㅎ야 대마도를 구어보니
 벼람조친 黃雲은 遠近에 사혁이고
 아득흔 滄波는 긴하늘과 ㅎ빛칠쇠

먼저 <선상탄>에는 주사(舟師)²⁷⁾ 즉 수군으로 부임한 정황과 더불어 해당 시기와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바, ‘乙巳三夏에 鎭東營을 ㄴ려오니’가 그것이다. 을사(乙巳) 삼하(三夏)는 1605년 음력 4~6월 사이를 가리키며, 진동영(鎭東營)²⁸⁾은 17세기 이전부터 부산에 대한 구호(舊號)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박인로는 1605년 4~6월에 부산에 수군으로 부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임진왜란 이후 1605년은 경상좌수영을 중심으로 일본군의 재침에 대한 군사적 긴장감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인로의 부방은 당시 일반적인 군역의 행위를 넘어 특정한 시기의 맥락과 관련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던바, 일본과의 강화교섭이 그것이다.²⁹⁾ 다만 선행 연구는 창작 맥락과 관련한 대관을 제시하는 데 주목하여 그 구체적인 정황을 간취(看取)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선상탄>의 서사(序詞)와도 관련한 역사적 정황이라는 점에서 그 면모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27) 주사(舟師)는 수군에 대한 범칭(泛稱)이다. 수사(水使) 등과 같은 수군 고위직 관료에 대한 이칭으로 보기는 어렵다.

28) 오늘날 진동영은 부산 일원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듯하다. 부산이 진동영으로 불렸던 것은 17세기 이전부터의 일이었던 것으로 보아 설득적이다. 『東岳先生集』, <次斗峯用釜山館韻> “長白山前去, 鎭東城上來. 盛代英雄老, 登臨酒一杯. 釜山號鎭東營”; 『清溪先生集』, <接待蠻使後釜山館感懷有作> “歲暮風煙晦, 樓高感慨生. 旌旗翻海色, 鼓角起邊聲. 氣激空彈劍, 才疏愧請纒. 年來憂國淚, 更灑鎭東城. 釜山舊號, 鎭東營.”

29) 황병익, 앞의 논문, 13~15쪽.

주지하듯 임진왜란은 1598년 8월 18일 히데요시의 사망을 계기로 일본군의 전면적 철수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1600년경 명군의 휴전 협정을 위해 피로인으로 보낸 이들의 송환이 이루어졌고, 같은 시기 히데요시의 사후 다이묘들 간의 내전이 발발하였다. 이에 명은 일본의 재침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으로 보고 조선에서 대규모 철수를 진행하였다.

이후 조선과 일본은 명을 제외한 체 지난한 강화교섭 협상을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마도(對馬島)는 히데요시 이후 일본의 정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2~1616)로부터 강화교섭권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으면서 외교 채널의 전면에 부상하였다.³⁰⁾

그런데 1604년 2월 귀환 포로인 김광(金光, ?~?)이 대마도로부터 송환되면서 다시금 재침위기가 고조되고³¹⁾ 민심이 동요하게 되었다.³²⁾ 이에 선조는 통신사 파견에 대한 대마도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604년 8월 사명당(泗溟堂) 유정(惟政, 1544~1610)을 탐적사(探敵使)로 파견하며 부산에 개시(開市)를 허락하겠다는 서신을 보내었다.³³⁾

문제는 유정이 대마도에서 돌아오는 1605년 5월에 이르기까지 선조를 비롯한 조선은 일본의 동향을 온전히 가늠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선조는 유정의 도일(渡日)을 계기로 변방의 군사가 나태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1604년 12월에 전라좌수영을 포함한 양남(兩南)에 군사 대비를 강화할 것을 비변사(備邊司)에 주문³⁴⁾하였고, 1605년 1월엔 경상 감사에게 동래와 부산 중에 믿을 만한 사람 두세 명을 골라 유정의 제자와 함께 대마도에 보내어 동태를 살필 것을 전교(傳敎)하기에 이르렀다.³⁵⁾

30) 민덕기,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東北亞歷史論叢』 41, 동북아역사재단, 2013, 97~139쪽.

31) 『선조실록』 선조 37년 2월 27일 무신 <경상도 하동 유학 김광이 평조신의 화친을 받아들여 신사 보낼 것을 건의하다.>

32) 『선조실록』 선조 37년 3월 12일 임술 <비변사는 유언비어를 금하는 고시문을 게시하고 범한자를 효시하라고 명하다.>

33) 임진왜란 직후 명군의 조선 철수 정황과 대마도를 통한 조선과 일본의 강화교섭, 군사적 긴장감에 대한 여러 외교적 정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였다. 민덕기,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 관계』, 경인문화사, 2007, 143~190쪽.

34) 『선조실록』 선조 37년 12월 13일 무오. <대마도로 간 승려 유정의 안부와 변방의 강화를 명한 비망기>; 선조 37년 12월 14일 기미. <비변사가 유정의 일과 변방 방어의 대책 등을 아뢰다>

35) 『선조실록』, 선조 38년 1월 16일 신묘. 문제는 유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은 당

이러한 저간의 상황은 유정이 귀국한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조선은 유정이 귀국 당시 이에야스에 의해 공식적인 화사(和事)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고, 이는 1606년 통신사 파견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까지 대마도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이어졌다.³⁶⁾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선상탄>의 창작 맥락을 살필 수 있을 듯하다. 1605년 박인로는 임진왜란 이후 명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부산 수군으로 부방하였던바, 이 시기는 강화교섭 문제를 둘러싼 여러 난항 속에서 대마도를 중심으로 급격한 재침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게다가 박인로에게 부산과 경상좌수영은 도산성 전투를 계기로 명과의 연합 군사 활동을 통해서도 왜적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전란의 경험을 반추하는 공간이자, 이적에 의해 중화가 위협을 받았던 치욕을 상기하게 하는 비극적인 공간이었다.³⁷⁾ 따라서 그에게 전란 체험이란 특정 시기로 한정된 ‘과거의 기억’을 넘어 <선상탄>을 창작하였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실상(實狀)’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상탄>에는 박인로의 전란 체험이 작품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關防重地에 病이 갑다 안자실라
一長劍 비기치고 병선에 구테올나

시 위군(委軍)으로 경상좌수영에 내려와 있었던 명군측 인사들로 인하여 유정이 귀국하기까지 실현되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38년 5월 4일.

36) 이에야스가 유정의 접견 이후에도 본격적인 강화 논의를 펼치지 않은 것은 유정이 관인이 아닌 승려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조선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덕기, 위의 책, 194~199쪽; 『선조실록』, 선조 38년 5월 15일 무자, <상이 변방의 대비에 관해 유영경·기자현·박승중·홍식·성이문 등과 논의하다>.

37) 작품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능하기는 어렵지만, 부기에서 <선상탄>의 창작된 1605년 4월은 선조의 주도 아래 임진왜란 당시 활약하였던 9,060명을 대상으로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이 발행한 시기였다. 당연히 이 녹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대상 선정 문제는 당시 조정의 주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선무공신 명단에서 제외된 무신들이 사기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요 논점이었다. 그런데 녹권을 보다 세심하게 분석해야 하겠지만, 『노계집』 <행장>의 기록과는 달리 박인로는 <선무원종공신녹권>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동안 경상좌병영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성운문 또한 공훈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면, 아마도 정유재란 당시의 패전 책임 문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1605년 삼하(三夏)에 부산 수군으로 부방을 한 박인로에게도 당시의 사건이 영향을 주었을 듯하다. <선무원종공신녹권>의 원본과 대상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본을 검토하였고, 서지적 성격에 대해선 다음 논의를 참고하였다. 임기영,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에 관한 서지적(書誌的) 연구』, 『嶺南學』 2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257~298쪽.

勵氣瞋目 ㅎ야 대마도를 구어보니

- ㉠ 日本 對馬島로 빈비 절로 나올년가
 다투 말을 미더 듯고 童男 童女를
 그딴도록 드러다가 海中 모든 섬에
 難當賊을 기쳐 두고 痛憤 ㅎ 羞辱이
 華夏에 다 밋나다
- ㉡ 蠡彼島夷 들어 수이 乞降 ㅎ야스라
 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티 殲滅 ㅎ라
 吾王聖德이 欲并生 ㅎ시니라

먼저 ㉠은 <선상탄>의 서사(序詞)³⁸⁾ 중 일부로 화자가 병든 몸을 일으켜 선상에 올라 대마도를 향해 노여운 태도를 보이는 내용이다. 1605년이란 창작 시기와 결부하여 보았을 때, 대마도를 중심으로 당시 조선과 일본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어 갔던 상황과 관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마도를 향한 화자의 태도는 <선상탄>의 본사(本詞) 중 일부인 ㉡에서 왜적을 감당기 어려운 존재로 묘사하며 근심하는 형상으로 이어진다. 일본과 대마도로부터 출현한 왜적을 두고 화하(華夏) 즉 유가의 문명국에게 치욕을 선사하였다는 인식은 임진왜란기에 창작된 전란가사 중에서는 드문 사례다. 이는 앞서 이탁영의 일기에 견주어 보았을 때, 도산성 전투와 관련하여 당시 박인로의 비극적인 전란 체험에 기반한 서술이라 여겨진다.

㉡은 <선상탄>의 결사(結詞)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특히 작품의 의미 지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대목으로 검토된 부분이기도 하다. 항복을 재촉하는 화자의 태도는 그 자신의 의지라기보다 오왕(吾王) 즉, 선조(宣祖, 1552~1608)가 병생(並生)하려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상탄>이 창작되었던 1605년경 대마도를 매개로 고조된 강화교섭의 문제와 군사적 긴장감을 고려해 보자. 화자의 태도는 당시 조선의 주요 정치적 현안인 강화교섭의 여러 난항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³⁹⁾

38) <선상탄>의 구성과 그 특징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39) 1605년 5월 유정의 답서를 확인한 선조와 비변사 관료는 일본 측의 통신사 요구와 관련하여 대마도를 향한 불신과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만 통신사 파견에 대한 관료들의 비판적 태도와

이처럼 <선상탄>의 서사, 본사, 결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정황은 박인로의 비극적인 전란 체험과 작품 창작 간의 상관성을 적절히 보여준다. 따라서 시름과 슬픔의 의미로서 <선상탄>의 ‘탄’ 또한 작품 전반을 관류하는 주요 정서로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선상탄(船上歎)>의 구성적 특징과 의미 지향

앞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선상탄>은 박인로의 국문시가 중 유일하게 제명에서 정서적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주지하듯 ‘탄(歎)’의 자의(字意)는 다양하다. 다만 <선상탄>의 창작 맥락이 작가 박인로의 비극적인 전란 체험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비탄(悲歎)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상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의미 지향과 정서상의 상관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작품의 구성적 면모를 점검함으로써 그 대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	분량	시간	주요 내용	시상 전개	
서사	14句	현재	부산 부방과 군사적 긴장감의 토로	문제 상황의 제시	
본사 1	본사 1-1	40句	과거	현월씨와 진시황, 서불 등을 통한 배의 해악성과 난당적(難當賊)에 대한 근심	부정적 인식의 제시
	본사 1-2	18句	과거	장한의 강동행, 어부의 생애 등을 통한 배의 유용성과 안빈낙도(安貧樂道)에 대한 갈망	긍정적 인식으로의 전환
본사 2	본사 2-1	39句	현재	늪고 병든 처지에 대한 한탄과 신원(伸冤)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근심	부정적 인식의 제시
	본사 2-2	15句	현재	분전(奮戰)에 대한 의지와 난관 극복의 각오	긍정적 인식으로의 전환
결사	16句	미래	도이(島夷)에 대한 항복의 종용 태평세월에 대한 갈망	문제 상황의 제시	

달리 선조는 조선과 일본은 끝까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였던 정황이 참고할 만하다. 『선조실록』 38년 5월 15일 무자 <상이 변방의 대비에 관해 유영경·기자현·박승중·홍식·성이문 등과 논의하다>

〈선상탄〉은 142구(句)로 구성된 작품이다. 주요 내용에 따라 서사(序詞), 본사(本詞), 결사(結詞)로 구분이 가능하다. 부산 부방과 군사적 긴장감을 토로한 서사를 시작으로 배의 해악성과 유용함에 대한 문제를 옛 전고를 통해 제시한 본사 1, 왜적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근심과 수군으로서 난관 극복의 의지를 표현한 본사 2, 그리고 태평세월에 대한 갈망을 제시한 결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선상탄〉는 서술상 정연(整然)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본사 1(58句), 2(54句)는 나름의 균형적인 서술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작품에는 ‘현실 → 과거 → 현실 → 미래’라는 비교적 일관된 시간 설정이 확인된다. 이는 박인로가 〈선상탄〉의 시상 전개와 관련하여 구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 정황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선상탄〉은 시상 전개에서 또한 일정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서사에서 제시된 문제 상황은 본사를 거치며 해소되지 않는다. 본사 1~2를 통해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으로의 전환이 반복될 뿐이다. 특히 긍정적 인식으로의 전환은 부정적 인식의 형성 동인이 해소된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내적 전환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후 결사에서는 부정적 상황에 따른 문제의식이 절정에 달한다. 태평세월의 도래에 대한 화자의 열망은 가정법을 토대로 제시⁴⁰⁾되고 있는바, 그 이면은 전란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과 수군으로서 자신의 처지가 바탕이 되어 있다. 따라서 화자의 갈망은 곧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을 반증(反證)한다.

정리하자면 〈선상탄〉은 정연한 구성적 특징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며, 이는 1605년 경상좌수영에 형성된 군사적 긴장감과 수군으로서 자신의 처지에 따른 심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서술 전략으로 이해된다. 특히 작품 전반에 걸쳐 현실의 문제적 상황이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미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바, 〈선상탄〉의 ‘탄’이 시사하는 비탄의 정서와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선상탄〉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그 실상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40) 이와 관련한 〈선상탄〉의 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太平 天下에 堯舜君民 되야 이셔 / 日月 光華는 朝復朝 ㅎ얏거든 / 戰船 ㅅ던 우리 몸도 漁舟에 唱晚 ㅎ고 / 秋月 春風에 눌히 베고 누어 이셔 / 聖代 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ㅎ노라” 결사의 표현 방식과 〈선상탄〉의 주제 간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은 본문에 후술한다.

늘고 病든 몸을 舟師로 보늬실식
 乙巳 三夏에 鎭東營 ㄴ려오니
 關防重地에 病이 깊다 안자실라
 一長劍 비기 ㄹ고 兵船에 구테올나
 勵氣瞋目 ㅎ야 對馬島을 구어보니
 ㄹ람 조친 黃雲은 遠近에 사혀잇고
 아득흔 滄波는 긴 하늘과 혼빗칠쇠

<선상탄>의 서사이다. 수군으로 병선에 올라 대마도를 향한 화자의 노기 어린 태도는 무인으로서 박인로의 의기(義氣)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대한 해석은 수군할 만하지만, 서사를 지배하는 불온한 분위기에 보다 집중할 필요 또한 있다.

먼저 관습적 맥락의 차원에 있다고 할지라도 화자는 ‘늘고 깊은 병’이 든 존재로서, 병선에 ‘굳이’ 오른 상황이다. 따라서 대마도를 향한 화자의 태도는 무인으로서 기개만 큼이나 위태로운 모습으로 제시된다. 이는 병선을 둘러싼 공간 설정에서 더욱 강조된다. 천지에 가득한 누린 구름과 끝없이 몰아치는 파도⁴¹⁾ 속에서 병선에 오른 늘고 병든 화자의 모습은 관방중지 즉 군사적 요충지의 무게감과 대조되며 불온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선상탄>의 서사에서 형성된 불온한 분위기는 본사에서 배의 무용성과 관련한 화자의 근심어린 태도와 맞물리며 그 실체가 드러난다.

어리 미친 懷抱에 軒轅氏를 애드노라
 大洋이 茫茫 ㅎ야 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비 아니면 風波 萬里 ㄹ긔
 어너 四夷 엿볼넉고
 무슴 일 ㅎ려 ㅎ야 비 못기를 비롯ㅎ고
 萬世 千秋에 ㄹ업슨 큰 弊되야
 普天之下에 萬民怨 길우는다

화자는 태고(太古)의 임금인 현원씨(軒轅氏)를 떠올리며 현실의 문제가 발생

41) <선상탄> 서사의 분위기가 전란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을 가리키고 있음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지적되었다. 황병의, 앞의 논문, 21쪽.

한 동인에 대해 토로한다. 주지하듯 현원씨는 배와 수레를 만든 존재이자 인류 문명을 창도한 황제로 추앙을 받은 인물이다. 그런데 화자는 이런 현원씨의 업적을 사이(四夷)⁴²⁾ 즉, 이적의 폐단을 일으킨 동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현원씨로 말미암은 문제는 천하의 원망으로 이어졌다는 화자의 언술을 보자. 이적으로부터 야기된 폐단이 태고로 상징되는 근원적인 시기로부터 시작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해를 뜻하는바, 이는 현실의 부정적 상황이 그만큼 쉽게 개선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후 이적의 폐단과 관련한 전고를 근거로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의 의식은 특정 시기의 공시적 맥락을 넘어 통시적 맥락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점이 주목된다.

어즈버 씨드라니 秦始皇의 타시로다
 빅 비록 잇다 嚚나 倭를 아니 삼기던들
 日本 對馬島로 뵈비 결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童男 童女를
 그딴도록 드러다가 海中 모든 섬에
 難當賊을 기쳐 두고 痛憤 羞辱이
 華夏애 다 밋나다
 長生 不死藥을 얼미나 어더너여
 萬里長城 놓히 사고 몇 萬年을 사도 쥘고
 늬딴로 죽어가니 有益 훈 줄 모르로다
 어즈버 싱각하니 徐市等이 已甚 ㅎ다
 人臣이 되야셔 亡命도 ㅎ는 것가
 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舟師 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화자는 ‘어즈버 씨드라니’, ‘어즈버 싱각하니’ 등의 유사한 어휘를 반복하는 데, 이는 화자의 의식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정황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현원씨로 대변되는 태고의 시절부터 천하에 만연한 이적의 문제는 진시황과 서불(徐市)의 전고를 통해 왜(倭)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이적은 만

42) 四夷는 본래 주(周)에 복속한 이적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각각 동이(東夷), 남만(南蠻), 서융(西戎), 북적(北狄)이다. <선상탄>에서는 이적 일반을 통칭하는 상위 개념을 지시한 것이다.

천하의 위협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적(難當賊)이자, 중화에 치욕을 선사하는 존재로서 인식된다.

현원씨와 진시황, 서불 등의 전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회상은 <선상탄>의 문면에 일정한 역사의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역사의식은 이적의 문제가 태고의 보편적 해악으로부터 시작하여 왜적에 필박받는 현실 상황과 맞물리며 그 폐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용문의 말미에 제시된 ‘舟師 이 시름’은 화자가 마주한 불온한 정황이 일시적 상황을 넘어 역사적 구도에 근간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전망을 쉽게 기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선상탄>의 역사의식은 작품의 주제구현방식과 관련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를 넘어서,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 사회에 대두되었던 인식과 관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유재란 당시 가족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 포로로 잡혀갔던 강항(姜沆, 1567~1618)이 당시의 비통한 심정을 읊조린 시에서 현원씨로부터 시작하여 진시황에 이르는 전란의 조짐을 언급한 것⁴³⁾이나 1617년 회답부사(回答副使)로 일본에 파견된 박재(朴棗, 1564~?)를 전송하며 남긴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글에서 현원씨를 원망하는 세태를 지적한 사례⁴⁴⁾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화자의 역사의식에 기반한 시름의 문제는 박인로 개인의 범주로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 사대부의 역사의식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43)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나라 떠나는 지금 천리길에 아득히 다시 동으로 향하네 / 아무렴 일본에 다 가자면 모두 순풍만을 믿을 뿐이네 / 재앙은 현원씨로부터 시작하였고 요망은 약케던 진동(秦童)으로부터 움뒀다네 / 남아로서 사방에 뜻을 두었건만 뜻밖에 왜의 땅에 이르렀다네 / 去國今千里, 迢迢更向東. 應須窮出日, 都只信便風. 禍首軒轅氏, 妖胎採藥童. 男兒四方志, 不意到倭中.” 진동(秦童)은 서불이 진시황의 명에 의해 동해 봉래산으로 불사약을 캐러 갈 때 데리고 간 동남동녀를 가리킨다.

44) 柳夢寅, 『於于集』, <送回答副使朴典翰棗入日本序>. “혹자는 현원씨(軒轅氏)가 무익한 것을 하여 외이(外夷)로 하여금 중국을 능멸하고 백성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천심(天心)은 사람을 지나치게 후하거나 박하게 대하지 않아 멀고 외딴섬까지 고르게 중국의 예의(禮義)를 입도록 하였으니, 배가 없었다면 고립되고 치우친 땅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 먹어 남은 종족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일본은 옛날 서씨(徐氏)의 후예이다. 동남동녀(童男童女) 3천 명을 데리고 일본에 건너가 거처하지 않았다면, 그 땅은 일개 텅텅 빈 황무지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或稱軒轅作無益, 使外夷凌中國, 人民履危地, 是大不然. 天心不偏厚薄人, 使遐洲絕嶼, 均被中國之禮義, 向無舟楫孤偏之地, 人食人, 蔑遺種矣. 今者日本, 古徐氏遺裔. 向微童男童女三千人來居之, 其地一蔡蓬空虛耳.”

<선상탄>의 문제의식이 조선의 현실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한편, 화자의 목소리가 사적(私的) 영역을 넘어 공(共)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전제가 된다.

이처럼 배의 무용성에 대한 화자의 역사의식은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는 전제로 기능하는바, 이는 배의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지속된다.

두어라 既往不咎라 일너 무엇 흐로소니
 속절 업슨 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潛思 覺悟 하니 내 뜻도 固執고야
 黃帝 作舟車는 윈 줄도 모르로다
 張翰 江東去에 秋風을 만나신들
 扁舟 곳 아니 타면 天淸 海濶 흐다
 어니 興이 절로 나며
 三公도 아니 밧골 第一 江山에
 浮萍又흐 漁夫生涯을 一葉舟 아니면
 어디 부쳐 든힐노고

먼저 화자가 배를 유용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근거는 ‘張翰 江東’, ‘浮萍又흐 漁夫生涯’ 등 안빈낙도의 삶과 관련한 고사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앞서 배의 무용성과 관련하여 일종의 인식적 전환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다만 이 인식적 전환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확보함으로써 수행된 것이 아니다. 화자의 태도는 ‘既往不咎’, ‘속절 업슨 是非’ 등의 표현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배의 무용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한 상황에 기인한다. 따라서 황제(黃帝) 즉 현원씨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이 잘못된 줄 모르겠다는 화자의 태도는 앞서 지속된 역사의식을 부정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다.

게다가 추풍(秋風)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흥겨워하는 장한(張翰)의 고사란, 삼하(三夏)의 더위에 고향을 떠나 배를 타고 군사 활동을 해야 하는 화자의 현실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화자의 안빈낙도에 대한 동경의 이면에는 수군으로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통한 심정이 전제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화자의 심정은 이후 수군으로서 한탄을 표현하는 내용에서 계속 된다.

일언 닐 보건딘 비삼긴 制度야
 至妙흔 덧 헉다마는 엇디흔 우리 물은
 누는 듯흔 板屋船을 晝夜의 빗기 트고
 臨風 詠月호되 興이 전혀 업는 게오
 昔日 舟中에는 杯盤이 狼藉터니
 今日 舟中에는 大劍長鎗 쏘이로다
 흥가지 비언마는 가진 비 다라니
 其間 憂樂이 서로 긋지 못 호도다

화자는 배의 제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한 채 전란의 현실과 수군으로서 처지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우법을 활용한 서술 태도는 화자의 심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⁴⁵⁾ 이와 더불어 ‘엇디흔 우리 물은’이라는 표현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물’은 박인로가 <태평사>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경상좌병영 산하 군사들을 통칭할 때 자주 사용한 표현⁴⁶⁾이다. 주지하듯 박인로의 국문시가에서 전고 및 유사·동일 어구의 빈번한 활용 양상은 그의 창작 방법과 관련하여 선가자로서 위상을 증명하는 사례로 주목받았다.⁴⁷⁾ 따라서 <선상탄>에서 <태평사>와 표현 방식상의 유사성이 확인되는 것은 문제적이지 않다.

다만 <선상탄>이 박인로의 개인적 심회를 토로한 작품이라는 일반적인 이해를 고려하였을 때, <태평사>의 사례로 보아 경상좌수영 수군을 통칭하는 의미로 판단되는 이 용어⁴⁸⁾를 사용한 저간의 사정은 무엇인가? 당연히 이를 두고 <선상탄>의 창작 맥락을 <태평사>를 비롯한 여타 국문시가처럼 대작(代作) 또

45) <선상탄>의 수사법과 관련하여 대우법(對偶法)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검토되었다.

46) <태평사> 左一帶에 孤雲갓흔 우리 물이 / 偶然 時來예 武侯龍을 幸혀 만나, 無狀흔 우리 물도 臣子 되어이셔더가 / 君恩을 못갑흘가 敢死心을 가져이셔, 耕田鑿井에 擊壤歌을 불니소서 / 우리도 聖主을 띄옵고 同樂太平호오리라

47) 최현재, 앞의 논문, 59~73쪽.

48) 박인로의 국문시가 중 ‘우리 물’이란 표현은 오직 <태평사>와 <선상탄>에서만 나온다. 두 작품이 군무(軍務)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용어는 박인로를 포함한 당시 군사들의 입장을 범칭(汎稱)하는 것으로 보인다.

는 명작(命作)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필자의 생각에는 ‘우리 물’이란 표현은 수군으로서 처지에 대한 화자의 한탄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당시 경상좌수영 수군 일반의 입장과 관련함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보인다.⁴⁹⁾ 이는 앞서 화자의 역사의식이 박인으로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당시 사회 일반의 이해와 관련하였던 정황과도 관계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수군으로서 화자의 탄식은 사적 영역을 넘어 경상좌수영 수군이라는 공(共)적 영역에 속하게 되며, 작품을 관류하는 현실의 문제와 그에 기반한 근심 어린 분위기를 강조하는 매개가 된다.

화자의 탄식은 이후 시대를 향한 문제적 태도와 결부되어 지속된다.

時時로 멀이 드리 北辰을 바라보며
 傷時 老淚를 天一方의 디어느다
 吾東方 文物이 漢唐宋에 디라마는
 國運이 不幸하야 海醜 兇謀에
 萬古羞을 안고이서 白分에 흐가지도
 못시서 브러거든
 이 몸이 無狀흐들 臣者ㅣ 되야 이서다가
 窮達이 길이 달라 몬 띄옵고 늘거신들
 憂國 丹心이야 어니 刻에 이즐넉고
 慨慨계운 壯氣는 老當益壯 흐다마는
 도고마는 이 몸이 病中에 드러시니
 雪憤 伸冤이 어려울 듯 흐건마는

화자에게 현실은 상시(傷時), 즉 슬픈 시대로 인식된다. 이때 시대의 슬픔이란 ‘국운의 불행’이라는 운명론적 사고와 결부⁵⁰⁾되는 한편, ‘萬古羞을 안고 이

49) 필자가 생각하기로 <선상탄>은 경상좌수영 수군 일반이라기보다 장교급 인사들과 관련하였을 가능성 또한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앞서 안빈낙도의 가치를 표방하기 위해 활용한 ‘漁夫生涯’에 대한 의미가 결사(戰船)던 우리 몸도 漁舟에 唱晚하고 / 秋月 春風에 놓히 베고 누어 이서)에서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습적 맥락이라 할지라도 전란 이후 안빈낙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범칭하는 ‘우리’는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할 존재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대부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유재란 당시 창작한 <태평사> 또한 경상좌병영 병사 일반가 아니라 군관급 사대부들로 한정될 가능성을 추론한 논의가 있다. 이승준, 앞의 논문, 95쪽.

50) <태평사>의 화자가 보이는 역사의식과 운명론적 세계관은 태고사(太古史)와 관련하여 복송 시

서' 즉 근원적 세계로부터 발호한 이적의 폐단과 직면하여 있다는 이해를 기반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이처럼 시대를 향한 화자의 문제적 태도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일종의 비참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신료(臣僚)로서 발분(發奮)한 기개와는 달리 정작 신원(伸冤)을 하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우국단심(憂國丹心)으로 표상된 이념성에 대한 화자의 굳센 의지는 병중(病中), 즉 현실의 상황과 마주하여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계다가 <선상탄>에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화자 개인을 넘어 당대 일반의 역사 의식과 운명론적 사고를 전제한 시대 인식에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자. 현실의 문제적 상황이 개선될 여지를 일부에서나마 자신의 처지로 치환시키는 태도는 그다지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은 이어지는 대목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死諸葛도 生仲達을 멀리 좃고
 발 업슨 孫臏도 龐涓을 잡아거든
 흐리며 이 몸은 手足이 7자 잇고
 命脈이 이어시니 鼠竊 狗偷을
 저그나 저흠소냐
 飛船에 들러드러 先鋒을 거치면
 九十月 霜風에 낙엽가치 헤치리라
 七縱 七禽을 우린들 못흐릴 것가

화자는 제갈량(諸葛亮)과 손빈(孫臏)의 고사를 활용하여 수군으로서 문제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표출한다. 문제는 화자의 근거가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지라도 제갈량과 달리 살아 있고, 손빈과는 달리 손발이 있기 때문이라는 태도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앞서 태고부터 기원하여 화화에 치욕을 미친 적으

기 주희에 의해 정립된 기수론(氣數論)적 역사 의식이자 세계 인식과 관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논의 참조, 이승준, 앞의 논문, 23~40쪽. 조선 사대부는 임진왜란을 거치며 이적이 중화를 침입한 현 상황에 대하여 다방면의 진단을 실시하였고, 기수론에 기반한 운명론적 세계 인식은 전란의 발발에 대한 중세 과학철학적 사유 방식의 하나였다. 따라서 <선상탄>의 화자가 지니는 인식 구도란 임진왜란 이후 사대부 사회에 고조된 세계 인식의 전형과 관련한다.

로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기실 이는 문학의 관용적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관념적 층위에 서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소망의 발현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그 소망의 발현에는 현실의 문제가 쉽게 개선하기 어렵다는 이해가 전제되어 있음은 비교적 자명하다. 특히 제갈량과 손빈의 고사를 통한 화자의 태도가 자신에 대한 다짐을 넘어 ‘우린들 못 할 것’으로 대변되는 경상좌수영 수군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자의 소망은 곧 경상좌수영 수군 일반의 의식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1605년 경상좌수영이 마주하였던 전란의 긴장감과 근심의 깊이를 적절히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이적에 대한 화자의 관념적 태도는 결사에 이르러 다시 전환되어 나타난다.

蠢彼 島夷들이 수이 乞降 ㅎ야스라
 降者 不殺이니 너를 구티 殲滅 ㅎ라
 吾王 聖聽이 欲竝生 ㅎ시니라
 太平 天下에 堯舜君民 되야 이서
 日月 光華는 朝復朝 ㅎ얏거든
 戰船 ㅅ던 우리 몸도 漁舟에 唱晚 ㅎ고
 秋月 春風에 놓히 베고 누어 이서
 聖代 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ㅎ노라

앞서 화자가 늙고 병든 몸일지라도 제갈량과 손빈처럼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선언한 것과 달리, 결사에서 왜적을 향한 화자의 태도는 항복에 대한 종용으로 수렴된다. 1605년 조선과 일본 사이의 강화교섭에 따른 여러 난항과 관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상탄>의 작품 내에선 왜적의 폐단에 대한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화자가 화자로 상징되는 유가의 문명국이 입은 치욕에 대해 우국단심을 잠시도 잊지 않은 신료로서 ‘雪憤 伸冤’을 갈망하였던 정황으로 보면, 항복에 대한 종용은 치욕을 해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자가 화이의 질서가 온전히 구현된 세계상을 갈망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太平 天下에 堯舜君民 되야 이서 / 日月 光華는 朝復朝 ㅎ얏거든’

은 유가 문명의 근원적 세계를 상징하는 요순시절의 질서가 매일 같이 현현하는 상황에 대한 가정이다. 그리고 이 가정의 결과로 화자가 주목하는 바는 ‘聖代 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흐노라’인바, 이는 전쟁의 종식이자 사이(四夷)를 굴복시켜 화이(華夷)의 온전한 질서를 회복한 주(周) 성왕(成王) 시기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다.⁵¹⁾

정리하자면,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신원이라고 할 것이다. 전란의 종식과 평화의 회복은 어디까지나 중화의 문명국으로서 입은 치욕을 온전히 씻은 상황에 기반해야만, 이념적으로 올바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개선의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태고부터 존재하였던 감당하기 어려운 이적, 늙고 병들어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 수군인 화자, 신원을 하지 못하고 항복만을 종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은 작품에 일관되게 설정된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과 맞물려 비통한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화자의 비탄은 경상좌수영 수군 일반의 목소리를 포괄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자. 늙고 병들어 버린 화자의 비탄이란, 임진왜란기 일본과의 대치에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수밖에 없었던 경상좌수영의 현실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듯하다. 1605년 부산과 경상좌수영으로 대변되는 전란의 사지(死地)에서 온전한 화이 질서가 수립된 태고 사회의 현현을 갈망하는 노래는 전란의 현실이 이상 사회의 그것과 괴리되어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작가인 박인로를 비롯하여 경상좌수영 수군들의 이해와 관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상탄>의 의미 지향은 전란의 종식과 평화의 갈망으로 같음하기에 앞서, 경상좌수영 수군이 마주한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맥락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주지하듯 17세기 시가사의 전망과 관련하여 임진왜란과 박인로의 국문시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정작 박인로의 전란가사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본고의 관심 대상인 <선상탄>의 경우 전

51) 『십팔사략(十八史略)』, <주(周)> “하늘에는 거센 바람과 굵은비가 없고 바다에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은 지 3년이 되었으니, 아마도 중국에 성인이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天無烈風淫雨, 海不揚波, 三年矣, 意者中國有聖人乎.”

란가사의 거시적 전망 속에서 부분적으로 조명되거나 박인로의 여타 국문시가와 관련하여 창작 맥락과 의미 지향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점은 그간의 논의들이 연구 방법론상 <선상탄> 자체에 대한 미시적 검토를 밀도 있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상탄>은 박인로의 국문시가 중 유일하게 제명에서부터 정서적 특질을 노출하는 작품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작품의 의미 지향과 정서상의 상관성에 대한 박인로 나름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전란가사로서 <선상탄>은 종전(終戰)과 관련한 일종의 긍정적 전망으로 진단하기에 앞서 선행 검토해야 할 지점들이 있는바, 도산성 전투를 중심으로 경상좌수영과 관련한 박인로의 비극적인 전란 체험과 1605년경 부산에 고조된 전란의 긴장감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게다가 <선상탄>은 현실의 문제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심회를 토로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상좌수영 수군 일반의 이해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할 필요로 한다. 이는 비탄의 정서에 근간한 <선상탄>의 의미 지향이 일종의 공(共)적 메시지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1605년 경상좌수영 수군들의 입장을 고려해 보도록 하자. 임진왜란의 충격과 관련한 전란의 공포를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실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선상탄>은 일종의 공감의 메시지로서 수용되었을 것이다.

끝으로, <선상탄>의 의미 지향과 비탄의 정서는 사대부의 예악관(禮樂觀)과 재도론(載道論)적 문학관에 견인되어 있었던 16세기 시가사에서 찾기 힘든 특징이다. 특히 연군시가(戀君詩歌)를 제외한다면, 비탄의 정서가 작품의 중심 시상을 견인하는 경우는 17세기 신흘(申欽)의 <방옹시여(放翁詩餘)>⁵²⁾에서나 확인 가능한 사례이다. 이에 전란가사로서 <선상탄>은 17세기 시가사의 변별적 자질의 출현 동인 문제와 관련하여 임진왜란의 영향을 방증하는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해당 문제의식과 관련한 시가사적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52) 대표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다.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 할샤 /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듯
든가 / 眞實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신흘의 <방옹시여>와 더불어 17세기 시가사
에서 술과 노래로 시름을 달래고자 하지만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화자의 내적 갈등
등이 나타나는 작품들의 출현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것이기도 하다. 이상원,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68~69쪽.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蘆溪集』

『東岳先生集』

『宣祖實錄』

『十八史略』

『於于集』

『李忠武公全書』

『清溪先生集』

김동규,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과 시가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34~47쪽.

김용찬, 「[가사 명품 산책] 전란의 뒤끝에서 평화를 기원하다, <선상탄>」, 『오늘의 가사문학』 19, 2018, 28~38쪽.

김용철, 「태평사의 내용 구성과 미적 형식」, 『한국문학논총』 29, 한국문학회, 2001, 7~26쪽.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신역(新譯) 노계집(蘆溪集)』, 대보사, 2017, 32쪽.

민덕기,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東北亞歷史論叢』 41, 동북아역사재단, 2013, 97~139쪽.

(UCI : G704-002002.2013..41.004)

_____,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 관계』, 경인문화사, 2007, 143~190쪽.

박인호, 「임진왜란기 지방 이서의 전쟁 경험과 정리 작업 : 이탁영의 『정만록』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34, 한국사학사학회, 2016, 35~65쪽.

(UCI : G704-001549.2016..34.00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慶尙左水營先生案>, 『港都釜山』 1, 대원인쇄문화사, 1962, 46쪽.

안병일, 「조선시대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운영과 기능, 그리고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8, 한국행정학회, 2014, 25~47쪽.

(UCI : G704-000298.2014.48.1.013)

이승준, 「壬辰倭亂 前後 국문시가의 太古 모티프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1~98쪽.

- 이상원,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서, 2004, 68~69쪽.
- 이영하, 「내영지(萊營誌) 원문」, 『국역 내영지』,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1, 67쪽.
- 이정주,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가사(歌辭) 연구(研究)-전쟁가사인 <태평사>와 <선상탄>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5,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55~59.
(UCI : G704-SER000012461.2015.16.2.003)
- _____, 「작품의 사회적 의미지향과 수사적 표현 연구-「선상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9, 아시아문화학술원, 559~571쪽.
(UCI : G704-SER000003988.2016.7.6.064)
- 이종문, 「蘆溪 朴仁老 文學의 創作 空間과 遺蹟 關聯 몇 가지 探索」, 『大東漢文學』 29, 대동한문학회, 2008, 184~196쪽.
(UCI : G704-001498.2008..29.004)
- 이형태, 「노계 가사의 유교문화적 심상공간과 그 의미 지향」, 『國際言語文學』 47, 국제언어문학회, 2020, 11~17쪽.
- 임기영,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에 관한 서지적(書誌的) 연구」, 『嶺南學』 2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257~298쪽.
-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위상과 활동」, 『군사』 1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281~319쪽.
- 최두환, 「壬辰倭亂 時期 朝明聯合軍 研究」,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79~94쪽.
- 최현재, 「朴仁老 詩歌의 現實的 基盤과 文學的 指向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56쪽.
- _____, 『조선전기 사대부가사』, 문학동네, 2012, 210쪽.
- 한성일, 「조선 전기 수군의 지역별 동원 실태와 운영-내륙지역[山郡] 양인의 수군 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193~196쪽.
- 한시진, 「문서행정을 통해 본 조선후기 慶尙左水營의 수군행정 운영」,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5~13쪽.
- 한창훈, 「박인로 가사에 나타난 표현의 사실성과 문제 해결의 관념성-<선상탄>과 <누항사>를 대상으로」, 『오늘의 가사문학』 10, 고요아침, 2016, 113~116쪽.
- 황병익, 「임란기(壬亂期) 부산지역 전란가사(戰亂歌辭)의 의미 고찰」, 『항도부산』 26,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0, 13~15쪽.

| Abstract |

Park In-ro's Experience of War and The Meaning Orientation of <Seonsangtan>

Lee, Seung-jun
Pukyong National Univ. Prof.

In relation to the 17th century Siga, Imjin war has an important meaning. Therefore, the Siga used at the time of Imjin war is important as a material to understand the 16th~17th century Siga. Park In-ro's <Seonsangtan> is important that it is a work that expresses the experience of war and personal emotion.

However, research on <Seonsangtan> has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Most of them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War Gasa or Park In-ro's other works. Such a research method is inevitably difficult to access in detail in terms of methodolog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a comprehensive analysis based on the sadness of <Seonsangtan>. To this end, Park In-ro's tragic war experience and the tension of the war that occurred in 1605 were noted. Through this,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rientation of the work were examin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 emotion of the work was sadn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origin of peace was also related to the perception that reality was separated from the ideal society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the work. It was revealed that <Seonsangtan> includes the voice of a Gyung-Sang Joasuyoung.

Finally, the meaning orientation and sadness of <Seonsangtan> are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icult to find in the 16th century Siga. It is related to the 17th century Siga. Through this, it was argued that <Seonsangtan> as War Gasa was a specific case showing the influence of Imjin war.

Keyword : Park In-ro, <Seonsangtan>, Sadness, Imjin war, Busan, Gyung-Sang Joasuyoung

